

일본의 환경기술분야 공개특허 현황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설정한 국제특허분류(IPC)를 기준으로 일본 특허청(JPO)이 분류·정리한 일본의 환경관련 기술분야에서의 공개특허 상위랭킹 발표

□ 일본의 환경관련 기술분야 공개특허 상위랭킹 현황 (FY2009)

순위	기관명	공개수
1	토요타자동차	384
2	파나소닉	108
3	토시바	77
4	혼다技研공업	69
5	덴소(デンソー)	68
6	쿠리타(栗田)공업	61
7	히노(日野)자동차	58
8	닛산자동차	53
9	太平洋시멘트	50
10	샤프	49
10	미츠비시후소트럭·버스	49
12	신코우(神鋼)환경솔루션	48
13	미츠비시중공업	46
14	마츠다(マツダ)	45
15	히타치제작소	44
16	이시카와지마하리마중공업(IHI)	41
16	시마즈제작소	41
16	추우고쿠(中國)전력	41
16	노우미(能美)방재	41
20	메타워터	40

※ 특허공개 :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출원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

□ 시사점

- 자동차(완성차)업체가 상위 랭킹에 7개 업체나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본 중앙환경심의회에서 2009년 이후 생산·판매되는 자동차에 대한 NOx(질소산화물)·PM(입자상물질) 등의 배출가스규제 강화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특허등록공개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 메가워터, 쿠리타공업, 신코우환경솔루션 등의 수처리관련 기업들도 상위에 랭크되어 앞으로 물부족 및 수질오염 심각한 중국, 동남아시아 및 MENA지역으로의 사업전개가 예상됨. 太平洋시멘트는 폐기물처리, 생활쓰레기자원화, 고순도실리카제조 등의 환경자원사업을 성장산업으로 전개하고 있어 환경기술관련 특허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
-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환경·에너지관련 재생가능에너지(태양전지, 풍력발전, 이차전지 등)기술, 스마트그리드 기술, 중국과의 자원문제로 희소금속·희토류 회수·추출기술, 3Rs기술, 수자원부족 및 수질오염으로 물관련 기술 등 지구환경적 과제를 해결하는 환경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개발 및 특허출원 등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임
- 환경기술개발은 환경규제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제를 주시하면서 기술혁신을 통한 국내외 환경문제 해결에 접근해야 함

자료 : 特許行政年次報告書_統計資料編, 特許廳(JPO) (2011. 6)